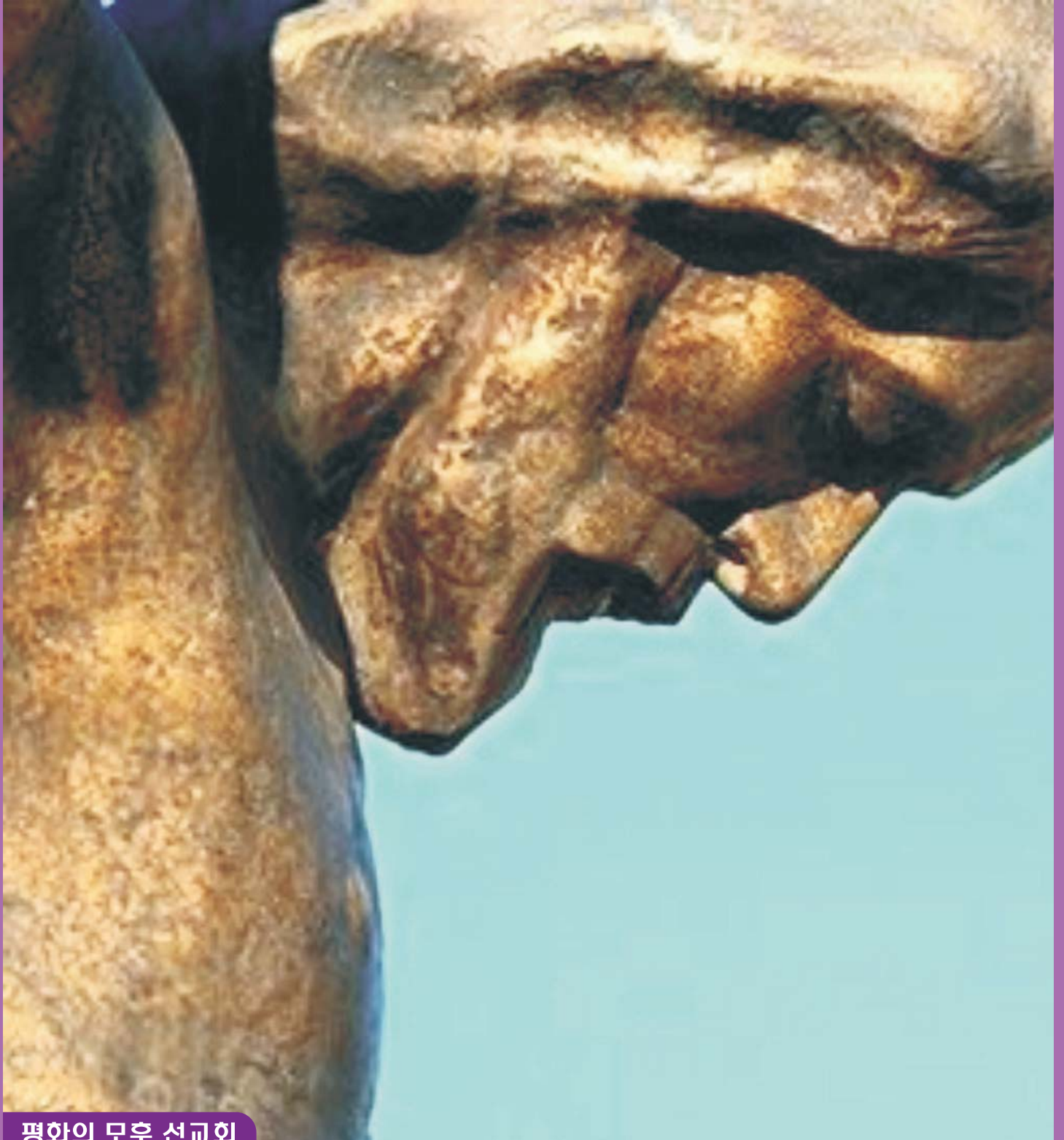


# 메주고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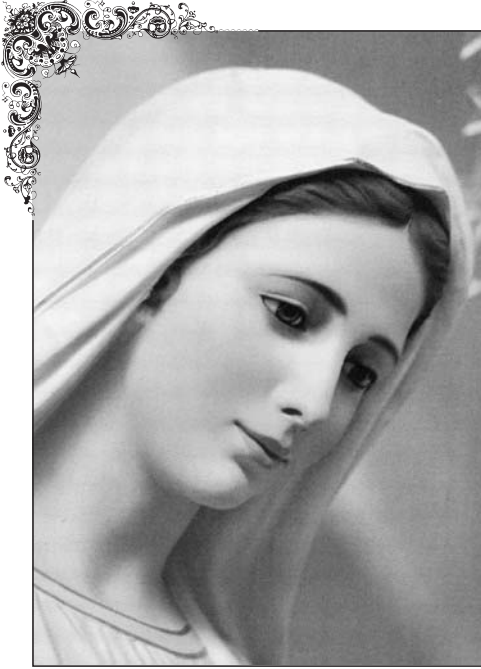


Medjugorje

February, 2009 제48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의 기도가  
 내 마음에 뿌려져, 내가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아들 예수님께  
 전해드리는 씨앗과 같이 되기를 빈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의 미래인 영원한  
 생명을 흠모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너희가 창조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오직 내 도움을 통해서만 너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영원을  
 향한 거룩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1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사제양성소 역할 충실”

### 교황청, 미 신학교 방문 조사 보고서

미국의 신학교들이 전체적으로 건전하며, 사제 양성소로서의 몫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미국 내 신학교들을 방문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미국 주교회의가 최근 발표한 교황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신학교들은 다소 부진한 성과를 냈지만, 1990년대 이래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신학교 총장과 학장들의 노력을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여전히 일부 기관들은 부적절한 면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교구 신학교들은 건전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신학교들에 대한 방문 조사는 지난 2002년 미국 추기경들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당시 군중교구장이었던 에드윈 오브라이언 대주교가 조사팀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다. 교황청의 감수를 받은 이 보고서는 대다수 신학교들이 사제직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부분의 신학교 장상들이 스스로 자신의 특별한 사도직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성소 부족 때문에 성소 후보자들에 대한 식별과 양성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D.C., 미국 외신종합】  
 가톨릭신문2009-01-25에서 발췌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박 창득 몬시뇰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지도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이 토마스의 영혼을 보살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셋별 레지오단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성모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피해망상증에서 치유시켜 주소서.
  - 수술후 Pain이 없어지도록, 손 마비도 풀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개월된 아기가 암에 걸려서 1월 28일 수술을 하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전세계 경제난으로 실직된 가장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하여...
  - 제 육체의 파킨슨병을 고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카타리나가 수련생활 무사히 마치고 굳건한 믿음의 수도자가 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 000가 마약과 컴퓨터중독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 아리조나 피닉스 한인 천주교회 평화의 모후 기도회 식구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아버지와 저희 자식들이 진정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죽은 모든 영혼들과 연옥 영혼들과 낙태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드립니다.
  -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 최규인젠마, 유상철 미카엘, 바바라 캔들, 이은경데레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 봉헌을 위하여 33일간의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 자매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성모님,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안식과 딸 소연이의 학업을 위해 빌어주세요.
  - 낙태된 아기 소피아의 상처치유와 안식을 기원합니다.
  - 남편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메주고리에 소식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에서 성모님을 만나고 있지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 고통과 가난의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과 힘과 용기를 주소서.
  - 6개월만에 세상에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경미를 위해서 100일 미사를 부탁드립니다.
  - 성모님, 양노엘 신부님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주소서.
  -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시여! 저를 메주고리로 불러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하느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 성모님! 올 한해도 저희 형제들 가정에 건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구하여주소서.
  - 항암치료를 마친 김 리디아로사의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장부에게 일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 미카엘을 비롯한 모든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저희 가정의 모든 부채의 해결과 자녀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6년간 아무일 없이 방안에서 힘겹게 자신과 싸우고 있는 최 제노베파를 위해 기도합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와 오빠가 천국에 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하느님의 선과 사랑안에 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청합니다.
  - 실비아, 루시아에게 치유와 성소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부르심의 응답으로 완덕에 이르게 하소서.
-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사탄은 하자 없으신 성모님을 두려워합니다.



**폴비오 디 폴비오 신부**  
이탈리아 성령쇄신 봉사회 전국위원 구마 사제  
남기옥 마르따 가톨릭 전문 동시통역사

질문 : 한인 신자들에게 신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폴비오 신부 : 제 이름은 폴비오 디 폴비오이며 이탈리아의 쎄라모나체스까 Serramonacesca라고 하는 아부르쥬 Abruzzo 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독실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금년 제 나이는 65살이고 폼보니아니 외방 선교 수도회의 이탈리아와 영국 신학교에서 소신학교를 마치고 1971년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1974년부터 성령 쇄신 운동을 시작해서 이탈리아 전역과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유럽에서 성령 쇄신 피정 지도 및 강연회를 했습니다. 1976년부터 페스카라 - 네 Pescara-Penne교구의 두 곳 병원 사목을 시작하여 1979년부터 지금까지 모스꼬포 Moscufo의 성 크리스토포로 본당을 맡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교구 구마사제인 동시에 이탈리아 전국 성령 쇄신 봉사회 임원사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두 명의 사제와 여덟 명의 수녀님들과 함께 작은 수도 공동체인 엠마누엘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곳은 다녀오셨습니까?

폴비오 신부 : 메주고리에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단지 교회만이 그 발현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메주고리에 본당이 소속되어 있는 모스타르 교구의 교구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모스타르 교구에서는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이 관할하고 있는 메주고리와 주변의 본당에 모스타르 교구 소속 사제가

파견될 수 있도록 반환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회교도들과 공산당들에 의한 박해시기가 있었을 때 모스타르 교구는 마을을 떠났지만 프란치스코회원들은 순교를 하면서도 마을을 지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고 동락하며 마을을 지켜준 프란치스코회 회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돈독한 신뢰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교황청에서는 발현사건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인준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교황청에서는 1991년 라칭거 추기경(현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통해 모든 교구와 순례단을 조직하는 이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식적인 메주고리에 순례단을 조직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그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교가 인정하는 순례단을 조직하여 그곳을 방문함으로써 주교들이 그 발현을 공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황청에서는 메주고리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별히 순례자들의 영적 지도에 관심을 두어 왔습니다. 이 목적으로 메주고리에 본당은 순례를 정당화하도록 성모 성지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15회에 걸쳐 메주고리를 방문했는데, 몇몇 친분 있는 사람들과 방문하기도 했고, 때로는 150 여명이 넘는 순례단을 조직하여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메주고리를 방문했을 때가 1983년 10월 이었는데 세 번에 걸쳐 발현증인들 곁에서 성모님 발현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발현 중 한 발현에서 성모님께서는 당신 현존의 표시를 저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발현초기 몇 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곁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번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희 도시에서 출발하는 배가 더 이상 메주고리에 순례단들을 실어 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만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구호물자 수집에 나섰고, 전쟁 피해자들에게 이런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도시에서 순례단을 조직하여 많은 신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합니다. 매 번의 순례 때마다 주님의 축복을 느낍니다. 그곳에서 돌아오는 이들 중 대부분은 마음의 쇄신,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께서 살아계신 현존을 실감합니다.

**질문 :**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악령을 잘 분별하도록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메주고리에가 구마 사제들에게 어떤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폴비오 신부 :** 메주고리에 본당의 성모님 발현 초기부터 그곳은 기도와 참회, 신앙의 정화와 성모신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메주고리에를 찾아갔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고집스럽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회개하게 하는 하느님의 힘을 만질 수 있는 고해소에서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혼들이 그곳에서 주님께 다가오게 되었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동료 구마 사제들이 악령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사람들을 메주고리에에 보내는 것을 압니다. 해방의 길을 발견하고 평안함의 은총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당연히 악령에 대한 분별도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질문 :** 악마는 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무서워하나요?

**폴비오 신부 :** 몇몇 교부들과 위대한 신비가들은 여인의 불순종으로 인해 악마가 세상에 들어 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인 마리아, 시온의 딸,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세우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여인, 승리의 여왕이시며, 예수님의 구원 활동의 첫 열매이자 하자 없으신 성모님을 유혹자인 사탄은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인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친교의 생활을 합니다. 성모님은 일치 안에서 당신 자녀들과 더욱 가까이 계시며 악령의 유



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모님 앞에서 사탄은 두려워 떨니다. 구마 예식 중 가끔씩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찬송을 봉헌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현대에 사탄은 더욱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힘만 믿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 표현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론과 토론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인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 테살로니카 5,16)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 2007년 12월 성황리에 마치신 한국 방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폴비오 신부 :**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미래의 한국 교회가 가톨릭 신앙의 전파에 큰 사명을 지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신앙을 알고자 노력할 때 성령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질문 : 이탈리아 성령 봉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요?

폴비오 신부 : 이탈리아에는 다양한 카리스마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주교위원회에서 인정한 단체를 성령 쇄신 봉사회라고 칭하고 그 산하에 2000여 개의 기도회가 속해 있습니다. 각 단체는 자치적이며 동시에 사목회의 책임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각 지역마다 책임 성령 쇄신 봉사회의 단체들과 기도회가 영적인 일치를 이루며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성령 쇄신 봉사회는 회장을 선두로 전국 봉사회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지며, 전국 총회장과 전국 협의회 임원 대표, 세 명의 자문위원, 한 명의 영적 지도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각 단체별 영성과 교리 강화 훈련과 특별히 하느님 말씀의 카리스마 영성에 주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의 세속화에 물들어 가는 유혹은 성령 쇄신 운동의 가장 큰 방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교계 내에도 성령 쇄신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정치가와 사업가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뜨거운 성령 쇄신을 원하십니다.

질문 : 신부님께서서는 교구에서 구마 직무를 위임 받으셨습니까. 구마 사제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폴비오 신부 : 일반적으로 구마 사제는 악령들로부터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주교님에게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제들을 말합니다. 구마 사제의 첫 번째 과제는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영적으로 정확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탄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구마 사제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구마가 필요한 영적인 치유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성령 쇄신 운동과 구마 사제로서의 직무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폴비오 신부 : 성령 쇄신의 카리스마는 구마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성령의 힘을 열거하면서 영의 분별과 악령들을 쫓는 카리스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이탈리아 교회내의 구마 사제들의 현황과 몇 명의 구마 사제들이 활동하고 있는지요. 또한 몇 개

의 교구가 구마 사제직에 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폴비오 신부 : 이탈리아에는 바오로 수도회의 가브리엘 아모르트 신부님이 계시는데 유명한 칸디도 신부님에게 직접 구마 능력을 사사 받으신 분입니다. 칸디도 신부님은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성 계단 성당에서 사목하시면서 구마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이분으로부터 구마를 사사 받으신 가브리엘 신부님은 부마와 구마에 대한 저술 활동으로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어 이탈리아 주교님들의 교구에도 구마 사제의 양성을 위한 협회 창설에도 발판이 되신 분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가톨릭 교회의 주교님들은 구마 사제들을 임명해 활동하도록 하고 있어서 많은 구마 사제들이 주교에 의해 위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구마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폴비오 신부 : 구마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로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사탄을 묶어둘 수 있는 직무이며, 한 사람 혹은 한 지역이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물러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질문 : 구마 사제를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폴비오 신부 : 교회법에는 구마는 주교들에게만 해당된 직무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의회 이전 모든 사제들이 부제품을 받기 전에 소품인 구마품을 받았지만 이 품을 수행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습다. 현재 교구장은 자신의 교구내에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제들에게 이런 직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들 구마 사제들의 활동은 주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모든 교회와 일치 중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교회를 통해 부여됩니다.

질문 : 성령 쇄신 운동을 하고 있는 평신도 중에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입장으로 볼 때 바른 것입니까?

폴비오 신부 : 안수라는 행위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안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행위는 안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안수는 이런 뜻도 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한다, 하느님의 선물에 너를 포함시키고 싶다." 교회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대부대모들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대자대녀에게 손을 얹도록 하고, 견진성사 중 대부대모가 견진자의 어깨에 손을 얹도록

##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탄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해서 평신도들도 안수를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마 예식의 경우 선택된 평신도들도 사제와 함께 그 구마 기도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구마 기도는 전적으로 교구장이 위임한 사제에게 해당됩니다.

**질문 :** 해방 기도와 구마 기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폴비오 신부 :** 해방 기도는 예수님께 향하는 기도로서 '주님의 기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도입니다. 반대로 구마 기도는 악령이 들린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하는 행위로서 하느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예식은 주교와 주교가 임명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교의 판단에 따라 평신도를 구마 직무에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이렇게 현대화 된 지금 정말 악마가 존재합니까?

**폴비오 신부 :**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초현대 속에서도 악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과거에 혼동을 초래했던 특정한 질병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발작, 그래서 악마의 영향이라고 단정 지었던 상태들을 현대의 발달한 수단을 활용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동은 많은 악마적인 현상이나 방해들을 정신질환, 히스테리, 정신분열 등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 낼 수 있는 현명한 분별력이며 구마 사제는 필요한 경우 정신과 의사의 견해와 이에 상응하는 도움을 받아 특별한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알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씩 의사들이 자신들의 환자들을 구마 사제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도 여전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질문 :** 평상시 어떻게 악마를 알아 볼 수 있습니까?

**폴비오 신부 :**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간략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간접적인 사탄의 활동

a) 속임수나 위선, 죄, 부패, 육욕의 불륜 등으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활동합니다. 악마의 유혹에 빠진 하와는 아담까지 끌어 들여서 사탄의 영향 하에 있게 만듭니다. 현대

는 불신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욕정, 특히 불결함, 감정과 느낌의 더럽혀짐, 불륜을 만연하면서 사탄의 힘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피하거나 부정한 생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사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b) 직접적인 사탄의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 유혹(불결한 우리 본성으로부터 유인될 수도 있고, 주위 환경으로부터도 올 수 있음) - 비이성적인 특성을 지닌 유혹입니다 (자살충동, 살인충동, 이유없는 증오, 폭력, 비윤리성 등등). 이런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c) 강박관념 : 어느 한 생각에 집착되어 이성의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합니다. 결국 영원한 구렁텅이에 자신을 빠뜨리는데 집착해서 모든 게 악으로 끝나게 하는 것 등입니다.

d) 억압 : 악령이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써 특별히 한 밤중 마비, 구타, 멍들게 하거나 고질병 등으로 괴롭힙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이나 전문직, 감정 등에 휘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e) 부마 : 사탄이 어떤 사람의 의지를 묶어버려서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마는 완전 부마와 부분 부마로 나뉘는데 완전 부마는 복음에 등장하는 게라사의 마귀들린 사람의 경우입니다. 부분 부마는 어떤 사람의 활동 영역의 특정 부분만을 노립니다.

f) 감염 : 장소에 대한 악마의 방해를 말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자주 발생하며 자의에 의한 낙태, 마술과 점성술, 미신 예식이 치러진 장소 혹은 비윤리적인 불륜이 저질러진 장소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장소는 축성되어 죄의 근본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질문 :**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분야는 한국 신자들에게 많은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더욱 흥미가 있고 꼭 알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정신질환과 악마적인 영향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까?

**폴비오 신부 :** 이 두 가지 증상은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

## 메주고리에는 성모님 발현 초기 때부터 기도와 참회, 신앙의 정확과 성모신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에 자주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 당하는 사람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의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을 먼저 숙고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유년시절의 유대관계, 충격적인 사건, 폭력의 여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성폭력, 성희롱에 의한 희생 등의 여부를 관찰하도록 합니다. 많은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병행 되어 담당 사제가 분별하도록 해줍니다. 그런 뒤 고통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법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의 속성에 의해 일어난 방해라면 여러 다른 사인들을 동반하는데 설명 불가능한 소음들, 비논리적인 사건들, 신비한 에피소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환자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증상 즉, 환자가 느끼는 것은 크게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객관적인 사건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특히 건전한 분별을 지니기 위한 증명 가능한 특정한 증상들입니다.

**질문 :** 악마에 의한 질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나요?

**폴비오 신부 :** 복음은 악마가 직접 유발시키는 여러 종류의 질병과 고질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판단기준과 더불어 이를 분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인들에 대하여 빛을 주시도록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정 결핍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악마의 억압을 받고 있다거나 부마 상태라고 단정하는 예도 자주 있습니다.

**질문 :** 왜 많은 현대인들은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을까요?

**폴비오 신부 :** 정신적 균형에는 애정 관계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대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 공백상태로 만들면서 건전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진실한 사랑의 관계는 극소수화 합니다. 애정 문제에서 비롯된 고독이야말로 우리 현대에 가장 많이 확

산된 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을 찾고, 형제적인 관계와 건강한 가족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치유됩니다.

**질문 :** 사탄에 대항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폴비오 신부 :** 성 바오로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6, 13-18참고)에서 당시 군인에 비유해서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 **진리로 허리를 두름 :**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서 그 진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선포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빛 속에서 활동하시고 확실성을 주십니다. 즉, 사탄은 어둠속에서 활동하고 의심을 유발하며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확산시킵니다. 진리에 무지한 곳에 사탄이 만연하며 사탄의 기본적인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2) **정의의 갑옷을 입음 :** 정의의 갑옷은 선을 위한 사랑, 하느님의 계명으로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무질서한 애정행각이나 거짓 애정은 과오로 내몰아 버립니다.

3)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음 :** 신앙은 전하면서 성장하지만 전하지 않을 때 건조해지고 꺼져버립니다.

4) **손에는 언제나 믿음을 방패를 잡고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음 :**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셨을 때, 단지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5) **구원의 투구를 받아 씌 :**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잘못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서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사탄의 영향력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6) **성령의 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짐 :**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부터 오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고 있는 말씀과 입으로 선포된 말씀 안에는 구원이 활동하도록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7) **끊임없이 기도함 :**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항상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스승이며 축복입니다.

질문 : 규칙적인 성사 생활이 사탄의 침투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까?

폴비오 신부 : 우리가 거행하는 성사에는 은총과 축복이 담겨있습니다. 성사들 속에서 예수님의 현존하심과 성령을 체험하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사 생활은 사탄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성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1요한 4,18). 근심과 걱정들은 두려움을 갖게하여 그 사람의 삶을 사탄이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 기쁨, 평화를 주십니다.

질문 : 많은 젊은이들이 악의 영향을 받는 가수들의 유행과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폴비오 신부 : 이 주제는 상당히 예민한 것으로써 젊은이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주제를 회피하는데 그들의 음악이 좋고 멋지고, 쾌락적인 것에 빠져서 다른 것들은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현실적으로 몇몇 음악들은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이런 음악에 몰든 사람의 특징은 즉시 기도를 그만두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유행들을 따라합니다. 그 부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애정 분야에서 드러납니다.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폐해들이 증명되자, 이런 종류의 음악을 담고 있는 CD들을 소각시켜버렸습니다.

질문 : 사탄의 영향에서 젊은이들을 보호하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폴비오 신부 :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신앙을 증거하는 건강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들의 삶에서 신앙과 믿음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 인내, 기쁨과 감사의 거룩한 삶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첫 번째 신앙의 스승이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공포나 불안 때문에 기쁨이 없는 부모들의

신앙 생활은 자녀들이 가정을 멀리하고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질문 : 북미주 지역 한인신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한 말씀해주세요.

폴비오 신부 :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 형제들처럼 사랑한다고 꼭 써주십시오. 한국분들의 신앙은 주님께 헌신적인 충만한 사랑을 지녔던 순교자들의 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님께서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교회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힘에 함께 하시어 예수님께서 영광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M**

2009년도 미주지역 강연을 앞두고 이탈리아의 구마 사제이며 이탈리아 성령 쇄신 운동 초창기 멤버이신 폴비오 신부님을 만나 흥미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대림 막바지라서 몹시 분주한 시기였음에도 신부님께서서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한인 신자들을 위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말씀들을 신중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폴비오 신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인터뷰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구마 사제와 말씀과 치유의 은사를 지닌 알다 수녀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한 초석이 되리라 믿으며...

남기욱 마르타



2007년 12월 9일 꽃 동네에서 성령 피정중인 폴비오 신부님과 알다 수녀님

# 성모여!

내밀한 침묵으로  
깊이 무릎 꿇은 영겁의 시간  
환한 빛줄기 한가닥  
가슴에 꽃히더이다

온 인류가 한 호흡  
숨결을 멈추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주소서"  
세상이 구원을 얻은 기쁨  
하늘이 환호 하더이다

말씀으로 잉태되신 영(靈)  
혼(魂)으로 받아 안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잠잠히 마음 안에 아로새긴  
나자렛 성가정의 삶

성부여!  
성부여!

미어지는 가슴  
칼에 에이듯  
온 존재가 녹아 내리더이다  
흘러 흘러 내리더이다

십자가 형틀에 달려 건네는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피맺힌 절규가  
온 인류를 품어 안아

하늘의 사랑  
이어 이어 가는  
기도의 사닥다리 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  
메마르고 가난한 숨 가쁜 영혼들에  
'어머니' 되신  
성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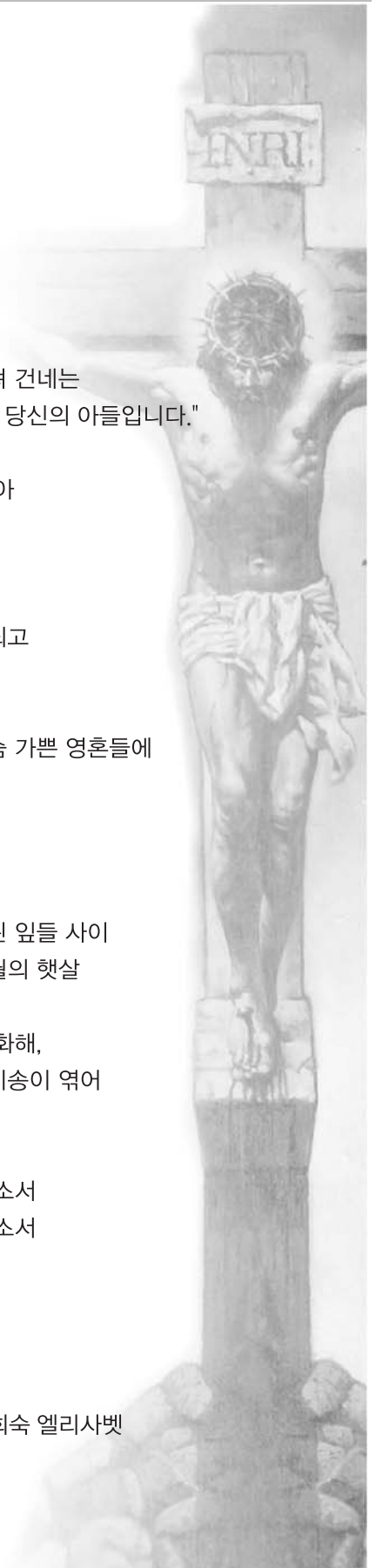
아름한 초록빛  
연록색 풋풋한 여린 잎들 사이  
빛겨져 내리는 오월의 햇살

눈물 젖은 용서와 화해,  
사랑의 장미꽃 송이송이 엮어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 위해 빌어 주소서  
우리 위해 빌어 주소서

오! 성모여  
나의 어머니시여!

안 희숙 엘리사벳





# 평화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 카푸친 작은 형제회

2008년 12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축복도 받지 않은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일하며 모아 들이고 있다.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 2005년 7월 25일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의 하루를 짧고 열렬한 기도로 가득 채우라고 너희를 부른다.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 말씀대로 우리의 하루를 짧고 열렬한 기도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하느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으며 모아 들이는 가운데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께 열리게 되고, 하느님은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느님의 힘, 그분의 축복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느님이십니다. 다음과 같은 시편 저자의 말씀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시편 127,1)

오늘 나는, 구유 앞에 멈추어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주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또한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그분이 없으면 너희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너희를 부른다. 성모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유 앞에 멈추어 아기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면 먼저 하느님의 겸손하신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도 우리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위대한 겸손과 우리에게 대한 지극한 사랑이 합쳐진 그분의 겸손하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태 20,25-28)

## 이제 인류는 아기 예수님 말구유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 모셔야 하는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요한 1,11)고 한 요한 복음사가의 말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냉대와 거부로 인해 동굴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눕혀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말구유는 인간으로 탄생하시는 구세주 하느님께 대한 인류의 배척과 거부의 상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말구유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더 이상 구유에 누어지지 않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죄를 뉘우치고, 그분을 삶의 가장 좋은 자리,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진정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너희 삶을 예수님 손에 맡겨드려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엄마가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기 위해 우리는 정말 작은 아기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 엄마를 신뢰하는 아기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삶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 예수님, 온 인류가 당신의 참된 겸손을 본받게 하소서.

예수님,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 가운데 탄생하신 구세주이신 당신을 흠송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현존에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인간이 되어 오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비롯한 온 인류가 당신의 참된 겸손을 본받게 하소서. 또 그 길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 저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대로 당신 손에 제 삶을 맡겨드리오니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소서.

성모님, 저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낳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작은 아기처럼 저희 자신을 어머니께 맡겨드리오니 저희를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소서. **M**

## 왜 성모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 2009년 1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의 기도가 내 마음에 뿌려져, 내가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아들 예수님께 전해드리는 씨앗과 같이 되기를 빈다: 2009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모님께서 "오늘도 역시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성모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건성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바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삶의 첫

## 너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리에 놓지 않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기에  
다시금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성모  
님께서 기도하라고 우  
리를 다시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너희의 기  
도가 내 마음에 뿌려져,  
내가 너희 영혼의 구원  
을 위해 내 아들 예수님  
께 전해드리는 씨앗과



같이 되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고 끊임없이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기도했고, 내일 기도할 것이기에 오늘은 기도하기를 멈추고 세상사를 위해 온 시간을 써야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바친 기도와 오늘 바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기도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인 것인 만큼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염려하시는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홀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구세주 예수님께 전해주시므로써 우리 영혼이 구원되기를 바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도가 내 마음에 뿌려져, 내가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아들 예수님께 전해드리는 씨앗과 같이 되기를 빈다." 물론 모든 기도를 바칠 때마다 성모님과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묵주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성모님의 마음에 담아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끊임

없이 엄마를 부르는 어린 아기처럼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과 하나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봉헌하시고, 그분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중재해주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의 미래인 영

원한 생명을 흠모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너희가 창조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아무도 제외되지 않고 참된 미래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그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흠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도구로 잘 활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께서 "너희의 인생은 마치 오늘은 놀랄 만큼 아름답지만 내일이면 사라져 버리는 봄꽃 같이 덧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1988년 3월 25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덧없고, 세상적인 것들은 사라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라져버리기 마련인 세상의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번 달 메시지에서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주셨던 다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어머니이다. 나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초대한다. 하느님만이 너희의 평화이시며, 너희의 구원자 이시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에서 위로를 찾지 말고 하느님을 찾아라.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너희 각자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고 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나와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기를 기대한다. 너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3년 9월 25일)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오직 내 도움을 통해서만 너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영원을 향한 거룩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성모님께서 1981년 6월 24일 처음으로 메주고리에 발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요한 세례자 탄생 축일이었습니다. 요한 세례자처럼 인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28년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메주고리에서 발현하고 계시는 평화의 모후께서는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모님은 현재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인류의 모습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회개하여 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구원과 평화를 얻기를 바라시는 성모

님의 영적인 모성애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머지 않아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발현이 될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끝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함으로써 영원을 향한 거룩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예수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당신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이 저희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믿음 그리고 회개와 희생으로 모든 시간들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고, 저희의 참된 미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의 영원과 저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성모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저희를 깨우쳐주시고, 저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메주고리를 통하여 계속 저희와 함께 머물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모님, 당신의 말씀처럼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희는 마음의 눈을 뜰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함께 매일 매일 기도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당신께 드리오니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영혼이 구원되어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빛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 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요한 12,35-36) **M**



## 모든 무덤 옆에

492. 93. 4.10. 루비오(비첸자)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내 아들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계시는 무덤 가까이에 모여 있어 다오. 나의 이 티없는 '고통'의 날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곁에서 지내 다오. 이는 나의 새로운 영적 모성이 (시작된) 날이다. 내 '아들' 없이 (홀로) 남아 있게 된 유일한 날이다. 내가 너희의 '엄마', 교회와 온 인류의 '엄마'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자각한 첫날이다.

오늘부터 나는 '엄마'로서 나의 새 자녀들이 누워 있는 모든 무덤 옆에 있다. 나는 무덤 옆에 있다. 모태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인생 속에 태어나지 못한 수백만의 무죄한 아기들이 누워 있는 무덤이다. 내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새 무덤(\* 마태 28,60; 루가 23,53; 요한 19,4)에 이해아릴 수 없도록 많은 무덤이 모여 있음을 보면서, 그토록 비(非)인간적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모든 아기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엄마의 뺨에 눈물이 한정없이 흘러내린다. 나는 무덤 옆에 있다. 인간적인 일말의 동정도 못 받은 채 공동묘지에 처넣어진, 증오와 폭력과 전쟁의 희생자들이 누워 있는 무덤이다. 나는 무덤 옆에 있다. 죄 많고 가난하고 병 들고 소외되고 박해와 탄압과 짓밟힘을 당한 내 모든 자녀들이 죽음의 잠 속에서 쉬고 있는 무덤이다.

나는 무덤 옆에 있다. 내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친 사람들, 내 아들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유해가 함께 모여 있는 무덤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오늘 모든 무덤 옆에서 기도와 비탄에 잠긴 채 너희와 함께 깨어 있고 싶구나. 이 성토요일 하루 내내, 다함없는 눈물이 엄마의 자애로운 눈에서 흘러내린다. 무덤으로 옮겨지는 나의 새 자녀들(의 죽음)을 각각으로 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특히 희망과 기대 속에서 모든 무덤 옆에 깨어 있다.

내 아들 예수께서 죽음과 지옥을 쳐이키시고 되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순간부터, 나는 내 모든 자녀들도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얻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끝없이 나누어 가질 때가 오기를, 신뢰하며 기다려 온 것이다. **M**

(이 메시지는 1973년 부터 1997년 까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

## 하느님 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와 약속

"네가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거든 자주 나의 자비를 흠송하고 찬양하여 너 자신을 나의 자비에 완전하게 잠그어라. 온 세상을 위해,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나의 자비의 전능함을 청하여라. 그 순간에 모든 영혼을 위해 자비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일기 1572). 이 시간은 전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일기 1320)"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상의 당신의 죽음의 시간(오후 3시)이 매일 공경받기를 바라신다. 그 시간은 자비가 정의 위에 우세하는 전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일기 1572)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비탄스런 수난을 묵상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가지신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흠송하고 찬미하며 예수님의 수난의 공로로써 우리 자신과, 전 세상,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간청하기를 예수님께서서는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가르치셨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을 바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십자가의 길을 바칠 시간이 없거든 잠깐 성당에 들러 성체 대전에 나아가 자비로 가득찬 내 성심을 찬양하여라. 성당에 갈 시간이 없거든 내가 있는 곳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 안에 네 자신을 잠그어라." (일기 1572)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이나 남을 위해서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일기 1572). 나의 수난의 공로 안에서 나에게 청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기 1320)"

자비의 시간은 명백히 오후 3시에 연결된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 바로 드러져야 하며 우리의 청원은 그분의 비탄스런 수난의 공로를 간청해야 한다.

## 〈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바치는 기도〉

예수님, 당신은 숨을 거두셨으나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원천은 세차게 흘러나왔으며 자비의 대해는 온 세상을 위해 열렸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심이신 오, 생명의 샘이시여, 온 세상을 감싸시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비우셨나이다. 우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 나온 오 피와 물이여, 나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일기718)

**이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 내가 베풀어 줄 은총은 얼마나 위대한가!"**

## 하느님 자비심을 구하는 5단 기도

'하느님 자비심을 구하는 5단 기도'는 계시에 의해 기록된 파우스티나의 일기에서 발췌된 여러 기도문들중의 하나로써 묵주를 이용하여 드리는 기도이다. 1935년 9월 14일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이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에 크나 큰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사제들은 이 기도를 죄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권장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마음이 굳은 죄인일지라도 이 기도를 바친다면 나의 무한한 자비심에서 은총을 받을 것이다." (II. 162~163)

"오, 이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 내가 베풀어 줄 은총은 얼마나 위대한가!" "네가 청하는 것이 나의 뜻에 맞는지 이 기도의 방법으로 너는 물어보고 얻을 수 있다." "자비심의 5단 기도를 바칠 때, 내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입중을 앞두고 5단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내 보호를 입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5단 기도를 바쳐도 같은 은사를 받을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이 기도를 바치면 하느님의 분노는 누그러지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그를 에워쌀 것이다. 그리고 성자의 수난을 위해 나의 자비가 움직일 것이다." - 자비심의 사도 192

"모든 수녀들과 수녀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5단 기도를 바치기를 원한다고 원장에게 전하여라. 성부의 분노를 풀어드리고 폴란드에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도록 성당에서 9일동안 이 기도를 바치게 하여라." -자비심 사도176 "자비심의 5단 기도를 바칠 때, 내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다." -자비심의 사도342 심한 폭풍이 시작될 때 나는 자비심의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빛이 저 폭풍을 밀어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향한 천사의 목소리였다. 그때 나는 천사가 그 폭풍으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게 될지 깨달았다. 또한 이 자비심의 5단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또 가장 힘있는 기도라는 사실도 알았다. -자비심의 사도 349

"내 딸아 모든 이들이 내가 가르쳐준 자비심의 5단 기도를 바치게 하여라 이 기도를 바치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그리고 죽을 때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 자비심의 사도126

† 예수님, 주님은 숨을 거두셨으나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원천은 세차게 흘러나왔으며 자비의 바다는 온 세상을 위해 열렸습니다. 오, 헤아릴 길 없는 하느님 자비이신 생명의 샘이시여, 주님께서 온 세상을 감싸시면서 저희에



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나이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님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오, 거룩한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시작기도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 신경**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1번)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10)

**마침 기도:**

◎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이여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세번)

◎ 성녀 파우스티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한번) **M**

(묵주로 드리는 자비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묵주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편집실 주)

(pmlleagnes.com/하느님 자비의 사도 연합회 한국 지원자 그룹 <http://kmedju.org> 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모든 영혼을 당신 상처로 감싸 안아 주소서...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짊어진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왔다.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이사야서 : 53장 4~6절)

### 겸손하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죄들 ...

저의 정다운 사랑이시여,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모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당신의 보속을 계속 하기 위함입니다.

####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의 발치에 꿇어 앉으십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신지 모든 천상의 만물들이 주목하면서 황홀경에 잠길 정도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네 발치에 꿇어앉

아 계신 당신을 보면서 기가 질려 거의 움짱달짝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내 작은 딸아, 나는 또 모든 거룩한 일, 곧 성사들의 집전을, 특히, 하느님의 영은 없고 사욕만 가득한 사제들이 교만의 영광 더불어 자행하는 모든 것을 보상하고자 한다. 얼마나 많은 선업이 내게 영예보다는 치욕을, 기쁨보다는 고통을, 생명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안겨 주는지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죄들이다."

오, 가슴 아픈 제 사랑이시여, 당신과 함께,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받아 모시려고 하는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눈물과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신 물로, 바야흐로 당신을 모시려고 하는 영혼들을 씻어줍니다. 당신께서 결코 홀로 계시는 일 없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들이야, 제발이지 지옥에는 가지 말아라! 네 영혼을 내게 다오. 제발이지, 너의 하느님인 나에게 이 고통을 없애 주려므나!" 당신은 유다의 발을 한 번 더 가슴에 안으십니다.

## 자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의 제정

제 마음, 제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손으로 빵을 드시고 아버지께 봉헌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이 아들의 말을 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저로 하여금 제병마다 머물러 자녀들의 생명이 되게 해 주소서."

제 마음의 마음이시여, 저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모든 감실과 성합 안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축성된 제병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 성체 안에서 저는 당신의 애정어린 눈이 당신 대전으로 올 모든 이들을 미리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봅니다. 오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받으시는 냉담함과 미지근함과 배은망덕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모든 독성죄를, 특히 잘못 거행되는 미사들을 보속하기 위함입니다. 제 사랑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자주 하늘에서 사제들의 손으로 내려오십니다, 사제들이 당신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당신을 부를 때마다 내려오시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사제들이 당신께 합당한 봉사자가 되어 다시는 당신의 성사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늘 깨어 있도록 우리의 인자하신 엄마께 기도하고, 엄마와 함께 모든 것과 사랑에 대해 보상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당신 성심 안에 가두어 주소서. 오 예수님, 제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저와 영혼들 안에 계신 당신께 바치는 끊임없는 봉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 영혼들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오 감미로운 제 사랑이신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작은 성체가 되게 하시여, 이 살아 있는 성체 안에 당신 전체를 모시게 하소서.

##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님, 당신 사랑의 눈길로 지탱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뺏속까지 떨리는 것 같고 마음이 부서져 내리니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소시오! 그러자 사랑하올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힘내어라. 내가 겪는 고통은 무엇 하나 놓치지 말고, 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가시들이 생각으로 짓는 많은 죄들, 특히 교만의 죄들에 대해 내 아버지 대전에 바치는 보속이 되고 용서의 음성이 되리니, 나와 함께 기도하고 보속하여라!"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잔인한 원수들은 당신을 앓히고 가시관을 쳐서 이마 속을 뚫고 들어가게 합니다. 가시의 일부는 눈과 귀와 머릿속까지 심지어 목덜미 속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 가시들은 내가 모든 마음들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마음들을 찢어 그 속에 들어있는 교만과 부패의 연기를 몰아내고, 나를 모든 사람의 왕이 되게하여라."

제 사랑이시여, 비오니, 당신을 욕되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담지 않고 모든 것 속에서 자유로의 당신을 찬미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제 임금님, 이 가시들이 저를 둘러싸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를 지키고 보호하며 오직 당신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 다시 빌라도 앞에 계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당신은 옷 대신 피를 입고 계십니다. 찢어져 떨어져 나간 살 사이로 뼈가 드러나 보이고, 거룩하신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도 없어졌으며, 거룩하신 머리에는 가시들이 단단히 박혀 있고 이것이 눈과 얼굴마저 찌르고 있습니다. 오, 피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가 땅에 흘러내려 당신의 발 주위에 웅덩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딸아, 이와같이 수모를 당함으로써 덕행만이 인간을 그 자신을 지배하는 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한다."

예수님, 제 사랑이시여, 하도 많은 고통의 무게에 짓눌린 당신은 서 계실 힘도 없어 비틀거리십니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엄숙한 순간, 빌라도의 말이 끝나자 하늘과 땅과 지옥에도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 내 아들이, 나는 네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시오!" 당신은 이 목소리들 속에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내 아들이, 나는 네가 죽기를,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를 바란다!" 마음이 꿰뚫리는 비탄에 잠겨 계신 엄마 역시 아버지의 음성을 반향하십니다. "아들이, 나는 네가 죽기를 바란다!"

제 예수님, 당신의 가시들로 제 생각들을 당신의 정신 속에 박아 주시어, 원수의 온갖 유혹들을 찢러 없애 주소서. 가시관을 쓰신 제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 가시들의 찌름을 느끼게 하셔서, 당신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당신을 제 온 존재의 임금님으로 모시게 하소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이 선고가 저의 것이 되게 해 주소서.

"오, 사랑하는 내 열망의 십자가야, 너만이 내 자녀들을 구원하리니 내 모든 사랑이 네 안에 모여 있도다 "

### 예수님께 다시 가시관이 씌워지다

원수들은 당신의 그 자색 옷이 가시관에 걸려 빠져 나오지를 앓자, 잔인하게 옷과 가시관을 무자비하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부러진 가시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머리 속에 깊이 박힙니다, 피가 냇물처럼 흘러내리고, 그 격심한 아픔 때문에 당신은 신음 소리를 내십니다.

"내 은총을 허비하고 거부함으로써 한층 더 심한 통증을 주는 가시들로 다시금 나를 찢러대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속한다, 그러는 동안 나는 신음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구원을 열망하지 않을수 없구나. 너만은 고난받는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말고, 내 곁에서 보속을 바쳐다오 "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사랑스러운 십자가야, 드디어 너를 안게 되었구나! 거룩한 십자가야, 너는 내 열망의 목표, 내 지상 삶의 목적이었다. 네 안에 내 온 존재가 집중되어 있으니, 네 안에 내 자녀들도 다 모아 두련다. 네가 그들의 생명과 빛이 되고, 그들의 보호자이며 인도자, 그들의 힘이 되어라. 나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들을!

### 예수님께서 갈바리아를 오르시며 첫 번째 넘어지심

넘어져 계신 제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일어서시도록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입맞춤을 드리며 피를 닦아내고 무지와 나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과 함께 보속하겠습니다.

### 예수님께서 복되신 어머니를 만나시다

제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에게 마지막 말씀이라도 하고 당신의 마지막 눈길이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다니시는 엄마를! 당신은 극도로 험숙한 엄마의 얼굴과 사랑의 힘으로 그분 안에 재현된 당신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더 더욱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십니다.

### 두 번째 넘어지심

두 분의 고통이 어찌나 극심한지, 충실한 요한과 경건한 여인들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신 당신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십니다. 수난 중이신 제 예수님, 저도 사무치는 비탄에 잠기신 어머니와 결합하여, 당신의 모든 고통을 제 것으로 삼고 당신의 모든 피와 모든 상처를 어머니처럼 돌보겠습니다.

### 예수님의 어깨에 난 깊은 상처

기진맥진하신 제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바치시는 보속을 따라가면서 보니, 무거운 십자가는 어깨를 내리눌러 뼈가 드러나도록 깊은 상처를 냅니다. 예수님, 당신의 고통을





역주) 얼마나 송고한 교훈입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과 함께 부족한 사랑들을 보상하며 청하오니, 부디 저 자신을 잊고 오로지 당신만을 기억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 세번째 넘어지심

예수님, 저는 비통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들은 사실상 당신을 질질 끌고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끌려가시는 동안, 당신은 온 힘을 다 쏟아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나가신 길에는 지극히 고귀한 피로 물든 붉은 자취가 길게 남아있습니다

### 옷 벗김과 세 번째 가시관 쓰신 예수님

가시관이 머리에서 뜯겨져 나올 때 당신은 신음 소리를 내십니다. 옷을 벗길 때는 헤어진 살점들도 함께 뜯어내니, 상처들이 터지면서 피가 냇물처럼 땅으로 흘러내리고,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신은 초주검이 되어 쓰러지십니다. 알몸이 되신 제 예수님, 당신을 품에 안고 따뜻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딸아, 여기는 내가 모든 이를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또한, 짐승보다 못하게 타락하여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죄를 보속하고자 하는 장소이다. 나는 알몸이 된 것으로써 사치롭거나 정숙하지 못한 옷을 입는 사람들과 음란의 죄들을 보속하고, 재산이나 명예나 쾌락의 노예가 되어 그런 것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의 죄를 보속한다. 그렇다. 그런 죄들 하나하나가 내게 죽음을 느끼게 한다." 알몸이 되신 제 예수님, 저도 함께 보속하며 기도하오니, 제 마음에 강복하시고 힘을 주셔서, 십자가에 무참히 못박히시는 당신을 보면서 저도 같이 못박히게 하소서.

오, 예수님, 언제나 당신 곁으로 저를 불러 주소서. 당신께서도 언제나 제 곁에 계시어, 저의 고통으로 당신을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어지신 예수님, 사랑하올 제 생명이시여, 여기서는 계체

떨어 드리려고 저도 어깨로 십자가를 지고 당신과 함께 모든 숨은 죄들을 보속 하겠습니다.

### 키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다

예수님, 제가 당신과 함께 보속하는 동안 저를 당신 품에 꼭 껴안아 주시어 당신께서 겪으시는 고통을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게 해 주시고, 고통으로 저를 변화 시키시며 모든 사람의 저버림을 보상하게 해 주소서.

###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리다

극도로 지치신 예수님, 베로니카가 아무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온통 피로 뒤덮인 당신 얼굴을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감사의 표시로 그 수건에 당신 얼굴을 박아 주십니다. 오 예수님, 저의 내면 전체가 당신 내면의 무한성에 잠기게 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지를 발견하여 악한 사랑과 악의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습니다.

### 예수님께서 경건한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지시고도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이신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 우는 경건한 여인들을 보시자, 당신 자신을 잊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 우시오." ( 2백주년성서 루가 23. 28 참조 -



## 저를 바치면서 당신의 모든 고통과 하나 되겠습니다.

오 복되신 오른손이여, 당신 팔의 신경이 짓이기며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동안 겪으신 고통으로 비오니,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 주시고 강복해 주소서. 당신의 강복으로 죄인들은 회개어로, 이교도와 비신자들은 진리의 빛으로 불러 주소서.

예수님의 왼손이여, 당신의 왼손이 못박히는 동안 받으신 타격과 고통에 의하여 기도하오니, 이 순간 수많은 연옥 영혼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소서. 이 피가 그들 모두에게 위로와 생기가 되고, 모든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 주는 은혜로운 목욕이 되어, 마침내 지복으로 빛나는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제 사랑이신 예수님, 당신 원수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의 두 발을 한꺼번에 못박으려고 한 발 위에 다른 발을 포깁니다. 더욱 고약하게 그것은 굵고 무딘 못입니다. 제 예수님, 이 못이 박힐 때에 부디 제게 허락하시어 모든 사제들을, 특히 착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제들을 당신 오른발 속에 집어 넣게 하소서. 못이 당신의 두 발을 꿰뚫는 것과 같이 사제들과 못 민족들도 꿰뚫게 하시어, 그들 중 어느 쪽도 당신과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오 예수님의 복되신 발이여, 당신의 발로 겪으신 극심한 고통과 뼈란 뼈가 다 탈골되는 아픔과 흘리신 피를 통해 간구하오니, 모든 영혼을 당신 상처로 감싸 안아 주소서.

당신의 못들이 저희 영혼의 능력들도 못박아 항상 당신 안에만 붙어 있게 하시고, 당신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에는 어떤 기쁨도 느끼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당신께서 피바다에 잠겨 계십니다. 오 예수님, 이 피의 능력에 의지하여 비오니, 어떤 사람도 당신에게서 달아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 성심의 사랑과 지극히 고귀하신 피를 통해 기도하며 간청하오니,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성화에 이르게 하소서. 오 예수님, 당신 성심의 불꽃으로 제가 언제나 사랑에 못박혀 있으면서 고통받고 보속하게 해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덮어쓰지 않은 죄란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이 십자가에 묶고 제 피와 상처로 부르짖으며 간절

마니에서의 그 수난의 밤처럼 당신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비탄에 잠긴 어머니와 사랑에 찬 마리아 막달레나와 충실한 요한도 있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거룩하신 얼굴에서 냇물처럼 흘러내리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셔서, 아무도 악한 생각으로 당신을 모욕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십자가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보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십자가야,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라! 내가 팔 다리를 뺀고 네 위에 놓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내 모든 자녀들에게 천국을 열어 주고 지옥을 닫아버리기 위함이다."

감미로운 제 사랑이시여, 저는 당신과 함께 영원하신 아버지께 저를 바치면서 당신의 모든 고통과 하나 되겠습니다.

"딸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너를 내 생명의 생명이 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음에 간직하리라."

저의 예수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극심한지 아름다운 눈은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거룩하신 얼굴도 핏기가 사라져 시신처럼 창백해지셨습니다.

히 청하오니,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오 아버지, 이 십자가로, 이 고통으로, 모든 사람에게 참된 회개와 평화, 용서와 성화를 허락해 주소서."

## 하느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기도

"저를 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설마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겠지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한편, 모든 사람의 머리이기도 하니, 사람은 저의 지체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버리시면 저도 함께 버리시는 것이 됩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제 얼굴에 이 모든 모욕을 담고 있으니, 저의 이 얼굴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련한 인류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가련한 인류에게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푸소서!"

"아버지, 이 찢어진 양손과 손을 박고 있는 못을 보십시오. 저는 언제나 아버지를 인류에게로 끌어당겨 아버지의 은총과 자비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 사랑과 고통의 현장을 보시고도 노여움을 풀지 않으신다면, 대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 시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인성의 끔찍한 파괴를 보시며, 곧 죄가 당신의 거룩하신 지체에 자행한 가공할 악행을 보시며 얼마나 애처로워하시는지!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슬픔에 잠겨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뽑은 사람들마저 너와 함께 있지 않으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 영혼들은 피신처를 구해 네 마음 안에 숨어 있으면서 너를 쓰라리게 하고 더 괴로운 죽음을 주는 것 같구나. 게다가, 그들이 네게 주는 이 모든 아픔은 위선에 가려져 있다. 아들아, 이 사람들의 배으로 인한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비통을 느끼게 하니 말이다."

오 예수님, 당신은 쓰디쓰고 못박히는 아픔을 당신 마음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겨내시면서 아버지의 화를 풀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내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아버지와 저

에게 봉헌한 영혼들 중 길 잃고 헤메는 자들을 위하여, 부서진 제 마음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마음의 비탄과 끊임 없는 고통과 고뇌를, 죽음에 처한 지겨움과 슬픔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가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모든 고통으로 아버지께 청하오니, 참회와 참된 회개와 효과적인 은총을 이 불행한 영혼들에게 내리소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그토록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숭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후에도 당신의 첫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라니! 오 인자하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자비를 간구해 주시고, 당신 보혈의 한없는 공로를 그들에게 쏟아 주십시오. 오 예수님, 당신 사랑보다는 피조물의 사랑을 선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오늘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오 예수님, 이 지극히 귀한 피의 공로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오, 영혼아, 보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를! 당신은 힘없는 눈길을 당신 엄마에게로 돌리십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이해하십니다. 엄마에게 사람들을 맡기실 수 있어서 위안을 받으십니다. 요한 안에서 온 인류를 보시면서, 모든 이의 마음을 녹일 만큼 다정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제 모든 자녀들을 어머니께 맡깁니다. 저에게 느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어머니다우신 자상한 애정으로 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를 위해서 그 모두를 구해 주십시오."

오 복되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머니가 되어 주소서.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엄마의 지향과 일치하여, 예수님과 엄마를 거스르는 모든 죄를 보속하겠습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돌처럼 마비되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기절하십니다. 오 제 예수님, 당신이 애처롭고 불쌍합니다.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의 멸망 때문에 그 비탄의 외침이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오 예수님,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은총을 더해 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목 마르다!"**

"나는 너희의 의지, 너희의 애정, 너희의 갈망, 너희의

사랑이 목마르다. 내 심장과 내장이 바짝 말라 있다. 이 목마름을 불쌍히 여겨 다오! 불쌍히 여겨 다오!"

**"이제 다 이루었다!"**

임종 중이신 예수님, 당신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오 예수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보속하겠습니다. 당신 사랑에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 자신을 다 써버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는 모욕을 보속하겠습니다. 당신께 위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려는 듯 십자가 주위를 둘러 보십니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움작도 못한 채 빈사 상태가 되어 말없이 서 계신 엄마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떠나지만, 엄마를 제 마음에 품고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자녀이고 엄마의 자녀이기도 하니,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의 눈길은 아무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죽음**

천지 만물이 뒤집히며 창조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는가 하면, 원수들도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돌처럼 굳어 죽음 상태에 있는 당신 어머니





## 내 아들이, 이 엄마에게 마지막 한 마디라도 하려무나!

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십니다. 예수님, 저도 당신 사랑과 당신 뜻 안에서 완전하게 죽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제가 살아 있을 때나 죽을 때나 결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없게 해 주소서. 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시관을 쓰신 당신 머리에 입맞추며 청하오니, 저의 교만과 야심과 자만심에서 나온 모든 생각들을 용서하소서. 오 예수님, 저는 온전히 당신 생각만은 아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과 마리아님, 제 영혼을 맡깁니다!"하고 외칠 것을 약속합니다.

###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당신을 가장 먼저 무릎 위에 받아 안으신 이는 통고의 어머니이시니 가시 박힌 당신의 머리가 어머니의 팔 안에서 고요히 쉬고 계십니다. 천상 엄마의 손은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가서 영겨붙은 피를 닦아내십니다. 오 엄마, 저도 엄마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눈에 입맞추며 깊은 흡송을 드리십시오. 사랑하올 엄마, 흡송하올 예수님의 얼굴로 눈길을 돌린 엄마의 얼굴은 눈물과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명의 기척이 조금도 없지만, 그 신적 엄위로 하늘과 땅을 사로잡곤 하시던 이 얼굴을 흡송하십니다. 저의 천상 엄마, 엄마의 모성적인 손으로, 예수님께서 쉬실 수 없게 하는 모든 것을 제 마음에서 없애 주소서.

###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비탄

"내 아들이, 내게는 네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다. 오 사랑하는 아들이, 빛과 은총을 내뿜던 네 아름다운 얼굴이, 보기만 해도 황홀하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한 죽음으로 바뀌고 말았구나. 내 아들이, 이 엄마에게 마지막 한 마디라도 하려무나! 그러면 네가 겪은 모든 것 속에서 네 목소리를 들으면서 슬픔을 견디리니, 그렇다. 이 엄마는 네 고통의 힘으로만 살 수 있을 것이다."

"오 십자가야! 너는 내 아들에게 어찌하여 그리도 잔인했느냐? 그렇다 오 십자가야, 네가 내 아들에게 쏟아부은 그 잔인함을 가련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로 바꾸어라. 그리고 내 아들이 네 위에서 겪은 고통으로, 고통받은 영혼들을 위한 은총과 힘을 간청하여라. 그것은 천주 성자의 생명을

바쳐야 할 만큼 비싼 대가이니, 나는 '공동 구속자'요 어머니로서 그 영혼들을 너에게 묶는다. 오 십자가야, 내 천사들이여, 와서 이 피를 지켜 단 한 방울도 짓밟히거나 모독되지 않게 해 다오."

비탄에 잠기신 엄마,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어머니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에 감사 드립니다. 제 영혼이 슬한 근심과 두려움에 싸인 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혼자 있을 때에, 어머니의 눈물로 제 영혼을 씻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감싸 주시며, 예수님의 공로로 옷 입혀 주십시오. 어머니의 비탄과 예수님의 모든 고통과 업적으로 저를 아름답게 꾸며 주십시오. 예수님의 고통과 어머니의 비탄으로 제게서 모든 죄를 몰아내시고 저를 안고 천국으로 날아오르시어, 예수님의 팔에 안겨 주십시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저를 예수님의 성심 안에 넣어 주십시오.

오 예수님, 제가 행하는 모든 일에 당신의 권능과 사랑과 영광의 도장을 찍으시어, 모든 영예를 받으소서. 동정 마리아님, 거룩하신 아드님과 함께,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M**

(위의 내용은 독자들의 사순절 묵상과 기도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의 수난을 24시간 묵상할 수 있는 루이사 피카레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시간들"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묵상 책은 시작기도, 준비 기도, 감사기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면상 기재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실 주-)





# 우주의 여왕 (8)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발현목적증인 이반카 - 1 -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신경남 스테파노 옮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이반카 이반코비치(Ivanka Ivankovic)는 더 이상 매일 성모님을 뵈지 못하고 있다. 19번째 생일이 두 주간 지난 1985년 5월 6일, 성모님께서는 이반카에게 열 번째 비밀을 알려 주셨고, 이 날 성모님께서는 매년 당신의 발현 기념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음해 12월, 이반카는 라즈코 엘레즈와 결혼했고, 1987년 11월에는 그들 부부 사이에 크리스티나라는 딸이 태어났다(그 후 이반카는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인터뷰는 종종 친목 방문과도 같았다. 한번은 이반카가 딸 크리스티나를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그녀 자신과 복되신 성모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딸 크리스티나의 눈을 자기 손으로 가렸다. 이반카는 수줍게 킁킁 웃으며, "아기가 엄마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엄마도 아기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반카는 또한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늘 함께 계시는 어머니 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필자가 이 발현목적증인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이반카는 자기 녹음기를 켜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기억해냈다. 이반카

와 더 여러 번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터뷰의 핵심적 내용을 크로아티아어로 읽어 주자, 그녀는 그것을 가능한 빨리 세상에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반카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자기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 단순하고 겸손한 젊은 여성이다. 그녀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알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고, 메시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발현목적증인 가운데 키가 가장 큰 이반카는 조용하고 근면하며 부끄러움이 많으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매우 민감하다. 그녀는 근본적으로 평화롭고 조용하며 때로 솟구치는 부드러운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다.

\*\*\*

질문 : 이반카, 성모님께서 왜 이곳에 계십니까?

이반카 :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길로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이곳 메주고리에 계십니다.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용서를 청하는 죄인은 누구나 용서하십니다.

**질문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반카 :** 기도해야 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 즉 평화, 기도, 보속, 단식, 회개 그리고 화해의 메시지를 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질문 :** 이반카, 성모님께서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이반카 :** 매우 아름다우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언제나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질문 :** 천사들이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반카 :** 네, 아기들 같습니다. 그들을 만져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들을 만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반카 :** 네, 저는 천사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질문 :** 천사들은 성모님 양옆에 있습니까?

**이반카 :** 그들은 성모님의 위쪽에 있습니다.

**질문 :** 당신이 어린 크리스티나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천사들 생각을 합니까?

**이반카 :** 네, 저는 매일 천사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발현하실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오십니까?

**이반카 :**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황금빛 옷을 입으셨는데, 어깨 부분과 옷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질문 :** 성모님이 입고 계시는 의상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반카 :** 성모님의 의상은 옷 자체에서 발하는 황금빛 때문에 매우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때때로 슬픈 얼굴로 오신다지요?

**이반카 :** 네.

**질문 :** 왜 슬퍼하십니까?

**이반카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이 성모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 :** 죄를 지을 때 성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이반카 :**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치는지 보실 때 몹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질문 :** 그렇다면 성모님께서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신다는 뜻입니까?

**이반카 :** 네, 저는 성모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모님의 자녀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반카 :** 제가 직접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저와 함께 하신 순간부터, 저는 우리들의 진정한 어머니이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M**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욱 (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편집위원:** 최성득, 이금희, 이규현, 송시원, 한테레사, 남미자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



##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잊고 살아왔을까..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회개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순시기 초 그 영화를 두 번 보았습니다. 첫날은 가까운 친구와 셋이 보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시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남편과 동생 부부와 함께 다시 영화를 보았습니다. 첫 날은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몹시 마음이 아팠었는데 두번째 날은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 가는 고통을 지켜보시는 성모님의 심장은 조각 조각 부서져 온 몸에 보이지 않는 피가 흐르는 것같은 고통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때부터 성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멈추지 않는 눈물로 매일 내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면서 매일 미사 참여와 성체 조배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난 몇 년의 세월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속에 함께 하시는 성모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난 시간들을 제 마음에 묻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오랜동안 가보고 싶었던 메주고리에 순례를 떠나면서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대사의 은총을 청하며 루르드에서 침수 예식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리로 돌아 오는 기차안에서 자매님이 크리스가 태어난 과정과 낙태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줄 때 저는 성모님께서 그토록 오랜시간 저를 기다려주신 이유와 그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젊은 시절 지은 죄를 회개시키고 용서와 치유를 주고자 하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잊고 살아왔을까... 아니 죄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에 순례를 하면서 고백 성사와 회개로 제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깊은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랑과 보속과 희생으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 앞에 참으로 티 없고 흠 없는 마음과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참으로 어머니의 마음 찢긴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여



러번 낙태를 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고통스러워 한다거나 마음 아파하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고백성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뱃속의 어린 생명을 살해할 때, 성모 어머니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심장이 찢기는 고통으로 아파하며 울고 계셨음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꼭 전대사를 받고자 했으며 꼭 해야 할 나의 몫이라는 강한 느낌이 결국 나의 영혼과 태어나지 못한 나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대사를 받고자 했던 루르드 순례를 통해 그토록 크신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는 어머니의 크로 깊은 사랑과 은총에 제 온 몸이 녹아내리듯하였습니다. 저는 좀더 모든 죄

를 성찰하고 메주고리에가서 성사를 보려고 했으나 한 시라도 빨리 죄의 무게와 아픔을 씻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미사가 끝난 후 바로 고백 성사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자비하고 인자로우신 어머니의 사랑은 고백성사로서의 죄를 씻어주시고 남은 순례 일정은 나의 영혼이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에에서 고백성사의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와 용서받은 삶의 자유를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크신 사랑에서 배웠습니다.

저에게 있어 메주고리에 순례는 참으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앙의 체험이었고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나의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으며 태산보다 무겁던 죄를 양털보다 더 가볍게 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이 크신 사랑과 나의 죄때문에 십자가에 모든 고통과 수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한없는 사랑과 인내와 겸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주님께 인도하여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어머니 천상 엄마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저와 같은 지난 날의 죄 속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빛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마음으로 부족한 체험이지만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성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리는 밑알이 되기를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을 예수님과 성모님께 바치며 살아가겠습니다. **M**



## 메주고리에 음악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및 성시간

일시 : 3월 첫 번째, 세 번째 목요일 오후 7시(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4월부터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로 변경됩니다.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분당 성체조배 회원

"찬미 예수님! 네 부족함을 생각지 말고 감실 안에서 외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고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봉헌합니다.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냉담 중에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 전 새벽미사 후 아무도 없는 성당 안에서 혼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실까 생각하니 마치 늙으신 부모님을 혼자 남겨두고 오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체조배회를 통하여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심없는 믿음과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 급성간염이라는 병을 통하여 회사를 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는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당에 나오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던 남편을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예제키엘33장 말씀으로 정신이 번쩍들었습니다. "… 비상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그 보초에게 물을 것이다" 남편 옆에 서있는 나팔수가 바로 저 였는데 나팔을 불지 않는 죄 값을 저에게 물으신다는 말씀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전에는 성당 나가자는 말을 거절하면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았지만 죄 값을 저에게 물으신다니 이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과 함께 성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고 묵주기도를 드리고나서 새벽 미사 때와 성체 조배 시간에 남편의 마음이 바뀌지기를 기도드렸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나고 난후 주보를 보니 외곽교우를 위한 예비자 교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

다는 믿음으로 입교를 권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냉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혹에 빠지지 말자 다짐하며 성모님께 묵주기도로 매달렸더니 "몇 시까지 가면 되는데?"하며 시작한 교리에 남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카엘이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2남 1녀의 자녀 가운데 2002년도에 결혼하여 애기를 기다리던 막내 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 사위가 불임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이 주셔야만 저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소서. 사람의 손이 아닌 당신께서 손수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하며, 성모님께 54일 묵주기도를 드리고 의탁하면서 끝나면 또다시 계속해서 54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중에 마태오 복음 9장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네 딸에게 자식을 줄 수 있다고 믿느냐?' '네가 믿는 데로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도 간절히 기도하며, 성서를 읽던 중 사무엘 1장 '하나님의 기도'를 읽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가슴이 뜨거운 믿음을 주셨답니다. 딸은 낙심이나 불안보다도 담대한 마음으로 분명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느님께, 자녀를 입양해야 할지 혹은, 믿음으로 임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기도드리던 중 다시 시편 18장 29-30절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 넘을 수 있고 나의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못 념을 담이 없사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야훼의 말씀에 무슨 티 가 있으랴, 피신해 오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읽고, 사무엘 1장에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지난 체험들을 쓰다보니 마치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날들을 안타까운 마음에 아파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소망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험관 시술을 재촉하는 사위와 믿음으로 기다리는 딸과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처음엔 용기를 주시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내비치시면서 병원 시술을 원하셨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견디어 오던 딸은 사위에게도 시달리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가슴 터질듯한 원망과 억울함과 미움의 나날을 보내더니 끝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이 어느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하고 사랑 넘치는 목소리로 "너는 씨앗이 된다고 하더니 .... 네게서 싹을 틔우기에는 너는 너무 파릇 하구나" 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딸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TV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옆을 보니 감곡 성당에 갔을 때 가져온 9발의 총알을 맞고도 깨지지 않았다는 성모님의 사진이 딸아이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내가 쓴 수많은 총알들, 세상 사람들이 쏘아대는 그 총알들을 온 몸으로 다 받고 계시는 성모님을 생각하며,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성모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느끼고 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극도로 치닫게 된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 받을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먼저 화해를 청한다는 것은 너무 치욕적이라는 유혹이 사위와 화해하고자 하는 딸의 마음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하시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용서를 청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관 시술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원망은 여전히 딸을 괴롭혔습니다. 주변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눈치가 보여지지만, 딸은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손수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던 2007년 9월 어느날 오후, 딸이 자비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신 유일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깜짝 놀라 똑같은 기도를 계속 드리다가 자비의 기도를 바쳤답니다.

그 후 3주가 지난 2007년 10월 3일, 딸은 그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기도였음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키시던 날이었습니다. 임신 테스트를 해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떨리는 마음에 다시 해보아도 똑같았다고 딸아이가 울면서... 울면서 내게 전화했습니다. 그동안 분명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전화를 받는 순간 정신이 멍하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던 기도를 다 들어 주셨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중에 바쳤던 원망 섞인 기도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신 신실하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서는 영원무궁토록 찬미 받으소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희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너희를 가엾게 보시어 듣자마자 곧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신 성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냉담 중에 있던 사위도 회개하여 주일이면 함께 성당에 나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 내가 쓴 수많은 총알들, 세상 사람들이 쏘아대는 그 총알들을 온 몸으로 다 받고 계신 성모님

성체조배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조배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서 하루의 일과를 말씀드리면 "부족한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 마음에 분심이 가득하여 분간하기 어려울 때 기도 하는 마음으로 집어든 영적 독서에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젠가 "자유롭게 기도하면 되지 왜 꼭 성체조배회에 가입해야하냐?" 고 질문하시던 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면서 다음 약속도 없이 시간 날 때 만나자는 것과 몇 일 몇 시에 만나자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 놓으면 예수님께서도 저를 위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참 기뻐합니다. 미소 띤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분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연인 것처럼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부디 보다 많은 분들이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많은 은총을 받으시길 바라며 김영희 모니카 자매님의 성체조배라는 시로 끝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곁에 두고 싶어  
나 보다 더 많이 시계를 보며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신다.

나 보다 더한 설레임으로  
내 이름을 불러 주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귀염둥이"라며  
두 눈 가득 눈물을 담으신다.

나 어느새  
당당한 죄인이 되어  
주님앞에서 수다를 떨고  
다만 새벽이면  
당신 성작 속에  
남 몰래 죄를 담아 성부 아버지께 올려드릴 뿐.....

오늘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며  
나보다 더 많이 시계를 보신다. **M**

###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분께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여라.

-2004년 3월 25일 메시지-

2009년 사순절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24시간 고리기도에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24시간 고리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서에 참여 시간과 개인지향을 기재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협조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 기도 지향 :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 교황님과 교회를 위하여...
-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성화와 성모신심을 위하여 ...
- 세계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지도신부님, 봉사자들을 위하여...
- 40일 고리기도에 참여하는 이들의 개인 기도지향을 위하여...

**참여 방법 : 미사, 성체조배, 묵주기도, 영적독서, 화살기도, 묵상, 희생, 봉사등등  
40일 공동 고리기도 지향을 위하여 매일 미사가 봉헌 됩니다.**

절취선

## 성모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24시간 고리 기도 참여 신청서

40일 봉헌 기도시간	오전 (    ) 오후 (    ) 고리기도봉헌 (    ) 협조기도봉헌(    ) 기타(    )		
개인지향			
이름		영세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추천서적	루이사 피카레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시간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평화의 모후 선교회)**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 메우고리예와 드브로브닉 성모 성지 순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2007년 3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 일시 : 2009년 4월 26일 ~ 5월 4일 (8박 9일)
- ▶ 경비 : \$2,150.00 (워싱턴 IAD 출발기준)
- ▶ 안내 : 남그레고리오
- ▶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610-366-9612 / E-mail : qpmm.org@gmail.com

순례지 : 발현산, 십자가산과 14처, 청 십자가, 슬라브코 신부님의 묘지참배와 어머니 마을 방문, 부활 청동상, 기도와 노동으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체나콜로 공동체 방문과 체험담, 오아시스 수도원, 티할리나 성모님, 매일 저녁 야고보 본당의 은혜로운 저녁 예절인 묵주기도와 미사 및 성 시간, 치유의 예절 참석,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가의 성곽도시와 성지방문, 1700년전에 순교한 실바노 성인의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봉헌, 아드리아 해안가의 루르드 성모동굴 방문.

↑ 이곳을 절취하셔서 평화의 모후선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평화의 모후에서 격월제로 발행하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우고리예'와 '성지순례'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양식을 기재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세요	메우고리예 (        )    평화의 모후 (        )    성지 순례 신청서 (        )		
이름		영세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

Tel : 610-366-9612 / Fax : 610-366-9614 / E-mail : qpmm.org@gmail.com / www.qpmm.org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우, 강동훈, 강신일, 강은미, 강정구, 강재복, 권미숙, 권스티브, 구순희, 구옥림, 권금옥글라라, 김건일, 김경숙, 김테레사, 김마테라, 김만춘, 김말숙, 김명대, 김삼운, 김성숙, 김성주, 김세록, 김숙영, 김승인글라라, 김승희, 김시순, 김아네스, 김영서, 김영옥, 김올리바, 김옥천, 김옥희, 김원희, 김정순, 김정연, 김정자, 김정희, 김주희, 김지원, 김철, 김콘솔시아, 김태자, 김학실, 김현희, 김혜순, 김호영, 김효정, 나찬희, 남순자, 노마리아, 노영애, 도윤희, 문방자, 문안나, 민정숙, 박금자, 박도날드, 박문수, 박실비아, 박아가다, 박연희, 박병칠, 박종옥, 박혜선, 박천혜, 박칭희, 방마리아, 방영남, 방은미, 배선희, 백안셀모, 변레지나, 서애자, 선우귀녀, 서영희, 서정열, 성문선, 손아네스, 송테레사, 송정순, 송정훈, 스킴라스티카, 신순덕, 신혜경, 심세실리아, 안소영, 엄봉화, 엄토마스, 여애경, 예길자, 유보영, 유승현, 유제영, 윤경이, 윤경만, 윤정숙, 윤정애, 윤형분, 이갑희, 이귀옥, 이근행, 이누시아, 이동우, 이로서리아, 이마리아, 이명선, 이미림, 이복희, 이봉주, 이비비안나, 이선, 이송자, 이소피아, 이수은, 이순세, 이순자, 이아네스, 이요심, 이요안나, 이은경, 이인식, 이젬마, 이재순, 이진민, 이창호, 이해연, 임방혁, 임선미, 임주자, 임효경, 장영희, 장한순, 전문자, 전아그네스, 전연희, 전현숙, 정금희, 정광순, 정명좌, 조동진, 조성희, 조안나, 지현남, 지니김, 진도미니카, 차순구, 최규숙, 최동숙, 최상환, 최선영, 최숙희, 최영자, 최인숙, 최인순, 최정식, 팽정숙, 표상순, 한광울, 한수지, 황계자, 황인환, 황혜정, 허테레사, 허성용, 허정희, 허희선, 호베로니카, 홍경복, 홍승희, 홍옥선, 익명,

Yoon Lee, David Burger, K. Larcenaire, Tak U. Lee, Cynthia Ziggman, Je & Oun Kim, Ok Sun Karosas, Mary K Lee, Jae k Lee, Hwang Jung A, Myong S. Spence, Yoo Hee Yul, Chong Eaton, Chwi Vega, Joseph & Mary Kim, John & Jane An, Nan Soon Buffington, David J. Rigoni, Monica Guthard, Kim Harthausen, Moon J Lee, Agatha Phillips, Sarah Mendez, Y H Calkins, Yong Sun Hong, Annie Felix, Mary Lee, Barbara Alonoz, David Kim, Kyung Y. Han, Young Choe, S Oh, Joon Ae Ahn, Yeun Hee Juhn, Im Kim, Yoon H. L

- 십시일반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정성으로 발행되고 있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는 지난 2008년도 100,000여부를 발행하여 판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 지역, 한국, 캐나다, 영국, 이태리, 독일,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멕시코, 브라질, 터키, 중국에 성모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성모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과 단체는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어디든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b>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b>	
지난호 후원금	\$11,846.00
지출 :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11,916.11
잔액	- \$ 70.11



##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한방울이라도 남아있을때까지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안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영혼에 그토록 소중한 그분께 말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포옹하십시오."



비오 신부

# 치유와 은총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마태오 8장 16절)

초청강사: 폴 비오 신부 (이탈리아 성령 쇄신 봉사회 전국 위원 구마 사제)  
알다 피트리니 수녀 (엠마누엘 수도원 원장 / 환자 영성협회 전 지역 책임자)  
통역: 남 기옥 마르타 (가톨릭 전문통시통역사/선교학 박사)



폴 비오 신부



알다 피트리니 수녀

**동중부** 워싱턴 한인천주교회(Oley, MD) : ☎ 권프란치스코 301-437-1677

3월 3일~4일 (화,수) 오후 6:00 ~ 10시

**동북부** 아트란틱시티 & 체리힐 한인천주교회 ☎ 신마태오609-932-2533

3월 5일~6일(목,금) 오후 6:00 ~ 10시

포트리 마돈나 한인천주교회 : ☎ 남 미카엘라 610-366-9612

3월 7일(토) 오전 10시 ~ 오후 10시

1부 피정: 1~5시 구마, 영적 분별 및 치유

2부 피정: 7:00~10시 미사와 성 시간 및 치유 예절

메이플 우드 한인천주교회 : ☎ 김베레나 973-493-3404

3월 8일(일) 오후 1:15분 ~ 6시

성 남요한 한인 천주교회 : ☎ 추소피아 201-221-6533

3월 9일(월) 오후 7시 ~ 10시

**서부** LA 성 바실 대 성당 : ☎ 친 모니카 213-280-1533

3월 14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3월 15일(일) 오후 6:30 ~ 10시

**캐나다** 성 김안드레아 한인성당 : ☎ 416-447-4078 / 647-996-7255

3월 10일~11일 (화,수) 오후 6:30 ~ 10시

진행 : 묵주기도, 찬미, 강의, 치유, 미사, 성 시간

지도신부 : 몬시뇰 박창득 어거스틴

문의처 : ☎ 610-366-9612 E-mail: qpmm.org@gmail.com

협찬 : 미주 가톨릭 출판사 /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 / 평화의 모후 성물센터 / 동방인쇄소